

자회사 vs 지점

법인격, 세법, 인허가, 고용, 해외진출, 출구전략, 의사결정 기준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PDF 리포트 형식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01 법인격

02 세법

03 이전가격

04 연결납세

05 설립절차

06 고용-노무

07 인허가

08 출구전략

09 해외진출

10 의사결정

이 PDF를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각 항목이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도록 재배치해, 회의 자료나 의사결정 검토 문서로 바로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 커버와 요약 뒤에 01-10 항목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 긴 내용인 09번만 2페이지로 분리했습니다.
- 표와 카드가 한 페이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압축 조정했습니다.

법적 구조

독립 법인인지, 본점의 일부인지가 모든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세무와 고용

결손금 처리, 원천징수, 퇴직금, 인력 이동 방식이 구조별로 달라집니다.

확장과 회수

해외 투자, 외부 투자 유치, 매각, IPO 계획까지 같이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01-10 항목별 핵심 목차

각 항목은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며, 실무상 중요한 결론만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줄 요약을 붙였습니다.

01

법인격의 독립성

자회사는 독립 법인, 지점은 본점의 일부입니다.

02

세법상 주요 차이

신고 단위, 내부거래, 결손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03

이전가격 리스크

자회사에는 적용되지만 지점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04

연결납세제도

자회사 구조의 결손금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05

설립 절차 및 서류

자회사는 신규 설립, 지점은 사업장 추가登記 구조입니다.

06

고용-노무 관계

직원 소속, 퇴직금, 단체협약, 발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07

인허가-규제

업종에 따라 자회사 재취득과 지점 활용 가능성이 갈립니다.

08

출구전략

매각, 투자 유치, IPO는 자회사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09

해외 진출 신고와 사후관리

사전 신고와 세무 부속서류가 많아 2페이지로 분리했습니다.

10

최종 의사결정 가이드

초기 적자, 리스크 분산, 투자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웹페이지를 단순 인쇄한 버전이 아니라, 항목별 페이지 분리와 읽기 흐름을 우선해 다시 편집한 인쇄 전용 리포트입니다.

법인격의 독립성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책임 범위, 세무 처리, 운영 방식, 자금 이동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SUBSIDIARY

독립된 법인격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별도의 법인**입니다. 자회사는 자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모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

독립 납세의무자

배당으로 이익 이전

BRANCH

본점과 동일 법인

지점은 본점의 영업 조직 일부입니다.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지점의 채무와 법적 책임은 모두 본점이 직접 부담하며, 자금 이동도 내부 이동으로 처리됩니다.

무한책임

본점 합산 신고

자유로운 자금이동

주의

법인격 부인론 - 자회사 구조를 택하더라도 재산 혼용, 형식적 이사회 운영, 모회사의 과도한 지배가 있으면 실제 분쟁에서 독립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의 운영 통제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세법상 주요 차이점

세무 신고 단위와 이익 이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 선택은 현금흐름과 세후 수익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구분	자회사	지점
법인세 신고	독립 신고 자체 소득금액을 계산해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합산 신고 본점 손익과 합산해 하나의 법인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내부 거래	시가 기준 모회사와의 거래는 정상가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익 미인식 동일 법인 내부 이동이라 원칙적으로 손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받아 별도 신고합니다.	총괄납부 가능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익 배분	배당 구조 배당 절차를 통해 이익을 이동합니다.	자금 자유 이동 본점과 지점 사이 자금 이동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결손금 공제	모회사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결납세는 예외입니다.	본점 이익과 즉시 상계되어 전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자회사가 급여·배당 지급 주체로서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점과 지점 간 관리 주체를 미리 정해 실무 혼선을 줄여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초기 적자 사업이라면 지점 구조가 유리할 수 있고,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분리 가능성이 크다면 자회사 구조가 유리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전가격 리스크

자회사와의 거래는 세무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국내와 해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조별로 문서화 수준도 달라집니다.

국내 자회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인세법 제52조

저리 대여, 무상 용역, 비정상 가격 거래가 있으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배 관계가 강할수록 검토 강도가 높아집니다.

해외 자회사

국조법 + OECD 기준

정상가격 문서화 의무 가능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가격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필요 시 마스터파일·로컬파일·국가별 보고서 체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지점은 동일 법인이므로 본점과의 내부 자금 이동이나 재화 이동에 이전가격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지점 구조의 대표적인 세무상 장점입니다.

연결납세제도

자회사 구조에서 결손금을 모회사와 직접 상계할 수 없는 단점을 완화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완전 지배 관계의 그룹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각 법인의 손익을 합산해 그룹 단위로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회사의 결손금을 다른 계열사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어 자회사 구조의 세무상 단점을 일부 보완합니다.

요건 01 - 지분율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

를 직간접 보유해야 합니다.

요건 02 - 동의

연결 대상이 되는 모든 법인이 연결납세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요건 03 - 신청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개월

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5년간 계속 적용**되므로, 단기 절세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그룹 손익 구조와 향후 분사 계획까지 검토한 뒤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 절차 및 제출 서류

자회사는 신규 법인을 세우는 과정이고, 지점은 기존 법인의登記부에 사업장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읽기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상하 분리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신규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1

법인설립 등기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공증 필요
-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본금 납입 증빙 - 발기인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
- 정관 사본, 주주명부

지점 설치

사업장 추가 등기와 지점 사업자등록

1

지점 설치 등기

- 이사회 의사록 - 설치, 소재지, 지배인 선임 포함
-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지점용
- 지점 설치 완료된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점 사용 사실 명시
-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고용-노무 관계

직원의 법적 소속이 달라지므로 인사 이동, 퇴직금 처리, 단체협약 적용 범위까지 실무가 달라집니다.

자회사

직원은 자회사 소속

모회사와는 별개 사업장으로 보므로 파견·겸직 시 별도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점

직원은 본점 소속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이동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합니다.

자회사

전직 시 퇴직금 이슈

전직 과정에서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근속기간 합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점

근속기간 연속

동일 법인 내 이동이므로 퇴직금 계산과 인사 기록 관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회사

단체협약 별도 적용

노조와 단체협약 구조도 자회사 기준으로 별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점

본점 협약 연장 가능

본점 단체협약이 지점에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면 운영 기준을 통일하기 쉽습니다.

실무 메모

인력 재배치가 잦고 동일한 급여·평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지점이 편리합니다. 반대로 독립 경영과 성과 분리가 중요하면 자회사가 더 명확합니다.

인허가-규제

업종 특성에 따라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본점 허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회사

신규 인허가 취득 필요

새로운 법인이므로 허가를 다시 받는 구조

금융업, 의료업, 건설업처럼 업종 규제가 강한 분야는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지점

본점 허가 활용 가능성

동일 법인이어서 허가 공유 여지가 큼

다만 업종별로 지점 신고나 별도 등록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관할 기관에 사전 질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요 업종 주의

금융업, 보험업, 의료업, 건설업, 여행업, 주류 제조·판매업처럼 허가 체계가 복잡한 업종은 구조 선택에 따라 일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구전략

향후 매각, 투자 유치, IPO 가능성까지 본다면 자회사와 지점의 선택은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자본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분	자회사	지점
지분 매각	주식 양도로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구조가 되어 절차와 계약 정리가 더 복잡합니다.
외부 투자 유치	VC, PE, 전략적 투자자가 지분 투자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독립 법인격이 없어 사실상 투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IPO	자회사 단독 상장이나 분리 상장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점 자체 상장은 불가능하고 본점 전체 상장만 가능합니다.
청산-폐업	자회사만 별도로 청산할 수 있어 리스크가 분리됩니다.	지점 폐지는 가능하지만 채무와 평판 영향이 본점에 직접 남습니다.
리스크 격리	사업 실패 손실이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에 제한됩니다.	지점의 손실과 채무는 본점 책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결론

장기적으로 사업을 분리 매각하거나 독립적인 투자 스토리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자회사 구조가 훨씬 유연합니다.

해외 진출 - 사전 신고와 사후관리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가 핵심입니다. 구조에 따라 신고서 종류와 이후 제출 문서가 달라집니다.

01 송금 전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

해외 자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 사업계획서 - 투자 목적, 자금 조달·운용 계획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 합작투자계약서 또는 가치평가서 - 해당 시

해외 지점

해외지사 설치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 해외지점 설치 신고서
- 사업계획서 - 지점 영업 내용, 향후 계획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 은행별 설치 자격요건 입증 서류

02 설립 완료 후 사후관리 제출

해외 자회사

정기 제출 항목

-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 납입 후 6개월 이내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등 은행 요구 자료 병행

해외 지점

정기 제출 항목

- 설치완료 보고서 - 설치 신고 후 6개월 이내
- 영업활동 보고서 - 매년 정기 제출
- 현지 사업자등록증, 결산자료 등 첨부

실무 포인트

해외 자회사는 투자 신고와 이후 실적 보고가 핵심이고, 해외 지점은 설치 신고와 영업활동 보고 체계가 핵심입니다. 초기 신고 단계에서 은행 실무 요구사항을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진출 - 세무 부속서류와 과태료 유의

은행 신고만 끝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와 미제출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03 세무서 제출 부속서류

구분	필수 제출 자료
해외 자회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일정 요건 충족 시 • 국제거래명세서 - 내부 거래 발생 시 • 손실거래명세서 - 일정 규모 손실 발생 시
해외 지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 지점 결산 재무제표 • 본점 합산 신고를 위한 손익 산출 근거 자료

과태료 유의

명세서나 재무상황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거래는 이전가격 이슈와 연결되므로 정상가격 산출 근거까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사전 신고서, 송금 증빙, 연간 실적 보고, 법인세 부속서류, 정상가격 검토 자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누락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적합한가?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 리스크, 자본 조달 계획, 인력 운용, 향후 매각·상장 가능성을 묶어 판단해야 실제로 맞는 구조가 나옵니다.

지점이 유리한 상황

- 초기 적자가 예상되어 분점 이익과 빠르게 상계하고 싶은 경우
- 분점 인력을 발령 형태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경우
- 기존 허가를 최대한 활용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 배당 절차 없이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 프로젝트성 거점이나 단기 영업소가 필요한 경우

자회사가 유리한 상황

- 신사업 리스크를 본사와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싶은 경우
- VC, PE,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염두에 두는 경우
- 향후 자회사 단독 매각이나 IPO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별도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독립 경영을 하려는 경우
- 브랜드, 규제, 책임 범위를 본사와 나누고 싶은 경우

전문가 상담 권장

특정 업종의 지점 설치, 연결납세 도입, 해외 진출 구조 설계처럼 세무·법무·노무가 동시에 얽히는 사안은 사전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PDF는 `tax4` 사이트 내용을 인쇄용 검토 문서로 재구성한 버전입니다. 웹 인터랙션 대신 항목별 페이지 분리와 읽기 흐름을 우선했습니다.